

현안과 과제

■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Executive Summary

□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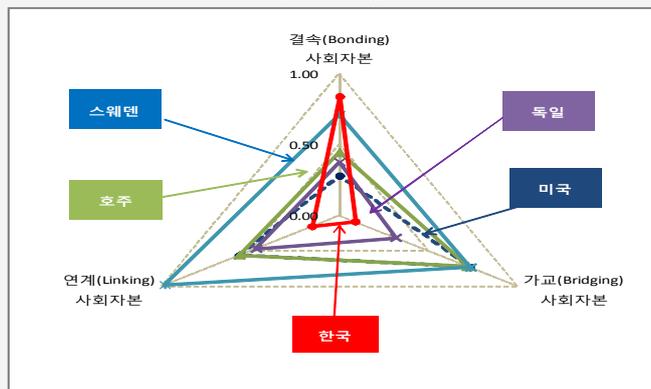
1. 사회자본의 중요성

사회자본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따라서 최근 잠재성장을 하락 등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자본을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크게 결속(Bonding) 사회자본, 가교(Bridging) 사회자본, 연결(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별로 그 수준을 평가해 보았다.

2.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한국의 사회자본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결속 사회자본)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간 연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혼 가족 비중을 보면 한국은 1.3%에 불과해, 미국(8.1%), 독일(6.4%)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둘째**, (가교사회자본 1) 외국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성이 부족하며, 자선단체와 환경단체 등 공적 단체 참여나 기부도 매우 미흡하다. 자선 단체 참여는 10.9%로 미국(30.3%), 호주(32.2%)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환경 단체 기부도 한국은 13.8%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저조한 편이다. **셋째**, (가교 사회자본 2) 음악이나 종교 등 사적 단체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음악·예술 단체 참여는 주요국 중 한국(22.4%)이 호주(30.2%) 다음으로 높다. 종교 단체의 적극적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통한 관계 형성에도 매우 활발하다. **넷째**, (연계 사회자본)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원이나 평화시위 등 정치 행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55.2%로 높은 편이나, 청원 경험(26.4%), 평화시위 경험(9.5%), 보이콧 경험(5.4%) 등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사회자본 발달이 미흡한 가운데, 가족, 친구 등을 통한 결속(Bonding) 사회자본 형성만 상대적으로 발달된 불균형적인 모습이다. 한편, 종교 등 사적단체 참여는 활발한 반면, 자선단체 등 공적단체 참여는 저조하며, 정치행위 등 연계(Linking) 사회자본의 형성도 부족하다.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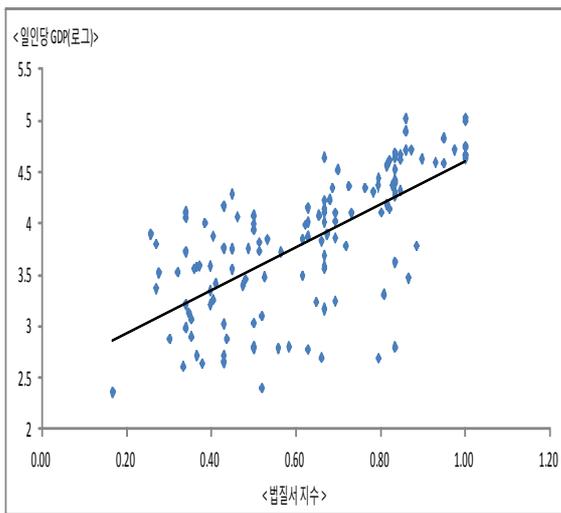
첫째, 개인들의 공적 단체 참여를 통한 가교 사회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단체 등 공적 단체에 대한 지원과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적 단체들 역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회자본의 중요성

- 사회자본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음
 - Knack and Keefer(1997)의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뢰가 10% 하락 시 경제성장률은 약 0.8%p 하락 (1980-1992년)한다고 함
 - Whiteley(2002)는 1970~92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뢰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실질 GDP가 약 0.6% 상승한다고 주장함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분석에 의해서도 법질서지수와 일인당GDP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남

- 따라서 최근 잠재성장을 하락 등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사회자본 연구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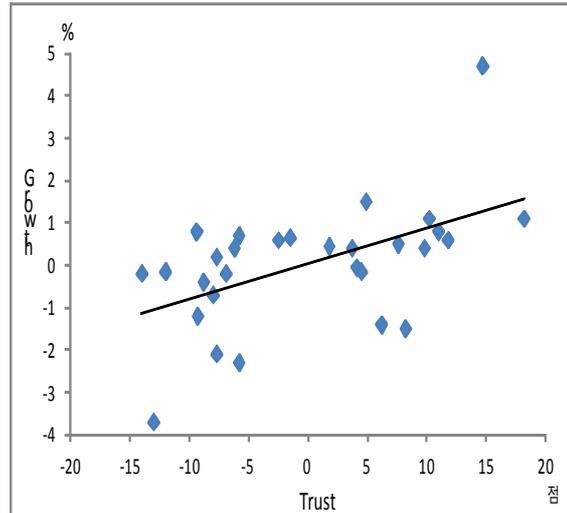
< 법 · 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 >



자료 : OECD,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

주 : 법질서지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지수, 일인당 GDP는 2012년 자료.

< 신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자료 : Knack and Keefer(1997).

○ 사회자본 연구에 대한 국내외 동향

-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자본 연구는 개인지향적인 인적 자원(Human Capital)과 차별화된 관계지향적 개념(네트워크 구조나 사회적 관계)으로부터 시작¹⁾
 - 이후 네트워크 뿐 아니라, 개인 행동 특성(신뢰, 관용 등)이나 국가정치(법의 지배, 규범, 시민권)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어 연구됨
 - 이런 확장적 연구²⁾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자본과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모든 것이 다 사회자본이라는 주장으로 확대됨

- 사회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노력함
 - 대표적인 사회자본 연구자인 푸트남(Putnam)은 신뢰나 협력 등 사회자본의 결과물보다 사회자본의 요소(주로 네트워크)에 집중할 때 개념의 명확화와 측정의 용이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2002년 OECD와 영국 통계청(ONS)의 사회자본 컨퍼런스(22개국 참여)에서는 네트워크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OECD의 사회자본 정의³⁾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사회자본 개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등 EU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근거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음

- 국내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개념이 있다기보다, 각각의 연구자들이 설정한 서로 다른 개념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사회자본 연구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 국제적 흐름에 맞춰 네트워크를 통해 본 사회자본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1) WorldBank(2002)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기존 인적자본이 개인적 차원에 그친 것에 비해 네트워크 등 좀 더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함.
2) 여전히 Knack(1996) 등 많은 학자들은 사회자본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연구가 학문적 방법론만 타당하면 사회자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Social Capital is "Networks together with shared norms, values and understanding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within or among groups"(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France).

○ 사회자본의 3가지 구성 요소

-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연구는 OECD의 사회자본 개념, 즉 사회자본은 그룹 내외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공유 규범, 가치, 이해를 함께하는 네트워크라는 정의를 따름
 - 사회자본의 핵심은 네트워크라고 고려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자본을 결속(Bonding) 사회자본, 가교(Bridging) 사회자본, 연계(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음⁴⁾

- 3가지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결속(Bonding) 사회자본 : 친척이나 친한 친구 등 동일 배경의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으로, 일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지원받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가교(Bridging) 사회자본 : 지인이나 동료 등 다양한 배경의 약간 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으로, 단체 가입을 통해 신뢰형성과 협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나타남
 - 연계(Linking) 사회자본 : 권력이나 돈에 의해 형성된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으로, 정치 행위 등의 형태를 통해 거시적 효과로 나타남

< 사회자본의 3대 구성 요소 >

구분	속성	형태
결속(Bonding) 사회자본	- 수평적 관계 - 동일 배경의 매우 친밀한 관계	가족, 친한 친구와의 관계
가교(Bridging) 사회자본	- 수평적 관계 - 다양한 배경의 약간 덜 친밀한 관계	단체 가입 등을 통한 지인, 동료와의 관계
연계(Linking) 사회자본	- 수직적 관계 - 권력이나 돈에 의해 매개된 관계	정치 행위(상하 관계, 권력 관계 등)

4) Eve Parts(2008).

○ 사회자본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

- (구성요소별 주요 측정 지표) 사회자본 측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은 WVS(World Value Survey), OECD의 설문 문항⁵⁾을 이용함
 - 결속 사회자본은 가족의 중요성, 친구의 중요성 인식 등과 이혼과 별거 가정 비중 등 4개 항목임
 - 가교 사회자본은 이민자, 타종교인에 대한 이웃 인정 여부와 예술/음악/교육 및 종교 단체 가입, 자선단체 가입, 환경 단체 기부 여부 등 6개 항목임
 - 연계 사회자본은 정치 중요성 인식 여부와 청원, 평화시위, 보이콧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됨

- (비교 대상국 선정) OECD 국가 중 대륙별로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 독일, 호주를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고, 북유럽의 대표적 사회자본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을 추가하여, 한국을 포함한 총 5개국을 비교함

- (사회자본 측정시 고려 사항)
 - 첫째, 전체적 사회자본 발달 정도가 중요함
 - 둘째, 각 요소간 균형적 사회자본 발달 정도 역시 중요한데, 한 개인이 3가지 사회자본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사회자본 요소에 치중할 경우 다른 요소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함

<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 >

구분		측정 지표
결속(Bonding) 사회자본	가족 및 친구의 중요성 인식	- 가족 중요성 인식 - 친구 중요성 인식
	가족 및 친구와 관계 형성	- 이혼 및 별거 가족 비중
가교(Bridging) 사회자본	타인에 대한 관용	- 이민자에 대한 이웃 인정 여부 - 타종교인에 대한 이웃 인정 여부
	단체 가입 및 활동	- 사적(예술, 종교)단체 가입 - 공적(자선, 환경)단체 가입 및 기부
연계(Linking) 사회자본	정치에 대한 관심	- 정치 중요성 인식 여부
	정치 행위 및 기업 관련 행위	- 청원, 평화시위, 보이콧

5) WVS(World Value Survey)는 미국(2011년), 호주(2012년), 독일(2013년), 스웨덴(2011년), 한국(2010년) 자료, OECD는 각국 2012년 자료.

2.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 결속(Bonding) 사회자본 :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간 연대도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친구나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⁶⁾
 - 가족이 중요하다는 한국인은 95.3%, 친구가 중요하다는 한국인은 98.9%이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구를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
 - 가족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이혼 및 별거 가족 비중이 가장 적어 한국인의 가족 간 연대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음
 - 이혼 가족 비중이 한국은 전체 가족 중 1.3%에 불과하여, 미국(8.1%), 독일(6.4%), 스웨덴(5.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별거 가족 비중도 한국은 전체 가족 중 0.6%에 불과하여, 호주(2.7%), 미국(2.4%), 스웨덴(2.3%)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임

<가족 및 친구의 중요성>			<이혼 및 별거 가족 비중>		
	친구 중요성 인식	가족 중요성 인식		이혼 가족 비중	별거 가족 비중
미국	93.3%	98.2%	미국	8.1%	2.4%
호주	93.1%	98.6%	호주	4.0%	2.7%
독일	93.5%	95.5%	독일	6.4%	1.2%
스웨덴	97.3%	98.2%	스웨덴	5.1%	2.3%
한국	95.3%	98.9%	한국	1.3%	0.6%

자료 : WVS(World Value Survey).

자료 : OECD.

6) 다만, 한국인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나 친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한국의 경우 77.5%에 불과해, 미국(90.3%), 호주(94.5%), 독일(92.6%)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 가교(Bridging) 사회자본 1 : 외국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성이 부족하며, 자선단체와 환경단체 등 공적 단체 참여도 매우 미흡

- 한국인들의 이민자나 타종교인을 이웃으로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편임
 -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44.2%가, 타종교인의 경우 31.1%가 이웃으로 인정하기 싫어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최하위 수준에 불과함
- 한국인들의 자원봉사나 기부 등 자선 단체 참여나 환경 단체 기부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임
 - 한국인 중 자원봉사나 기부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은 10.9%로 미국(30.3%), 호주(32.2%), 스웨덴(28.9%)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음
 - 한국인 중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은 13.8%로, 미국(17.3%), 호주(26.6%), 독일(19.7%), 스웨덴(38.8%) 등에 비해 가장 적음
- 이런 공적 단체에 대한 참여 부족은 한국의 경우 기부 활동 저조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부 행위 경험(32.7%)은 미국(62.3%)이나 호주(66.9%)의 반 정도에 불과함

<이민자 및 타종교인 이웃 불인정>

	이민자 및 외국노동자	타종교인
미국	13.6%	3.4%
호주	10.5%	4.0%
독일	21.4%	14.1%
스웨덴	3.5%	3.7%
한국	44.2%	31.1%

자료 : WWS(World Value Survey).

< 자선 단체 및 환경 단체 >

	자선 단체 가입	환경단체 기부
미국	30.3%	17.3%
호주	32.2%	26.6%
독일	13.3%	19.7%
스웨덴	28.9%	38.8%
한국	10.9%	13.8%

자료 : WWS(World Value Survey).

○ 가교(Bridging) 사회자본 2 : 음악이나 종교 등 사적 단체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

- 한국인들의 음악이나 미술 등 개인 취미를 위한 단체 참여가 공적 단체 참여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한국인 중 음악이나 미술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은 22.4%로 호주(30.2%)와 미국(23.6%)보다는 적지만, 독일(14.6%), 스웨덴(21.9%) 등에 비해 많은 편임
 - 단체 참여는 적극적 구성원과 소극적 구성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극적 구성원은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본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강함
 - 반면, 적극적 구성원은 협력 증진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구성원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를 지님

- 종교 단체 참여를 소극적 구성원과 적극적 구성원으로 구분할 경우 적극적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는 많은 편임
 - 푸트남과 같은 학자의 경우 종교가 일부 국가에서 국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단체 가입은 사회자본의 측정지표로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따라서 적극적 구성원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종교 단체에 대한 단순한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적극적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는 한국의 경우 22.5%로 미국(34.5%)를 제외하고, 독일(14.1%), 호주(14.9%), 스웨덴(5.6%) 등에 비해 높은 편임

<예술 · 음악 · 교육 단체 참여 여부>

	참여 여부	참여 구분	
		소극적 구성원	적극적 구성원
미국	23.6%	10.6%	13.0%
호주	30.2%	13.3%	16.9%
독일	14.6%	6.4%	8.2%
스웨덴	21.9%	9.8%	12.1%
한국	22.4%	16.7%	5.7%

자료 : WWS(World Value Survey).

<종교 단체 참여 여부>

	참여 여부	참여 구분	
		소극적 구성원	적극적 구성원
미국	62.8%	28.3%	34.5%
호주	40.6%	25.7%	14.9%
독일	48.3%	34.2%	14.1%
스웨덴	42.3%	36.7%	5.6%
한국	41.2%	18.7%	22.5%

자료 : WWS(World Value Survey).

○ 연계(Linking) 사회자본 :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원이나 평화시위 등 정치 행위는 부족

- 한국인들은 삶에서 차지하는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의 중요성의 경우 한국인이 55.2%로, 스웨덴(62.6%)을 제외하고 미국(53.0%), 호주(43.3%), 독일(4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한국인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청원이나 평화시위 등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함
 - 청원의 경우 한국은 26.4%만 경험이 있는 반면, 미국(60.1%), 호주(70.1%), 독일(42.7%), 스웨덴(68.0%) 등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평화시위 역시 한국은 9.5%만 경험이 있는 반면, 미국(13.7%), 호주(17.5%), 독일(21.1%), 스웨덴(20.8%) 등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임
- 또한, 한국인의 경우 보이코트 등의 정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임
 - 보이코트의 경우 한국은 5.4%만 경험이 있는 반면, 미국(15.5%), 호주(14.6%), 독일(12.9%), 스웨덴(21.9%) 등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정치 중요성 인식 여부 >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국	53.0%
호주	43.3%
독일	44.3%
스웨덴	62.6%
한국	55.2%

자료 : WWS(World Value Survey).

< 정치 행위 참여 경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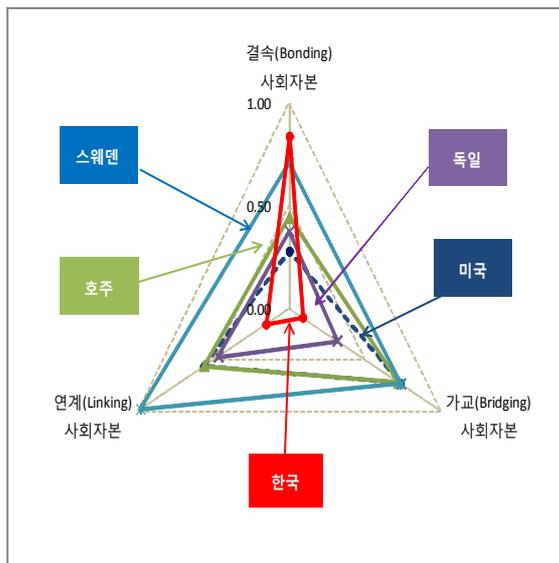
	청원	평화시위	보이코트
미국	60.1%	13.7%	15.5%
호주	70.1%	17.5%	14.6%
독일	42.7%	21.1%	12.9%
스웨덴	68.0%	20.8%	21.9%
한국	26.4%	9.5%	5.4%

자료 : WWS(World Value Survey).

3) 종합 평가

-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 전체 점수가 높고 균형적으로 발달한 반면, 한국은 전체 점수도 낮으면서 불균형적으로 발달됨
 - (전체적 발달 정도) 스웨덴이 총점 2.32점으로 가장 높고, 호주(1.66점), 미국(1.54점), 독일(1.17점), 한국(1.12점) 순서임
 - (균형적 발달 정도) 각 항목당 편차를 통해 균형적 발달 여부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는 균형적 발달, 한국은 가장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편임
- 한국은 전체적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가운데, 결속(Bonding) 사회자본만 많이 발달된 가장 불균형적인 모습을 나타냄
 - 결속 사회자본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연계 사회자본과 가교 사회자본은 가장 낮은 수준임
 - 다만, 특이한 점은 가교(Bridging) 사회자본 중에서도 사적 단체 가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공적 단체 가입은 매우 낮은 편임
 - 결국, 공적단체 참여, 정치 행위 등 공적 행위는 모두 매우 미흡하지만, 개인간 관계나 사적단체 참여 등 사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주요국 사회자본 현황 >



< 주요국 사회자본 점수 >

	결속 사회 자본	가교 사회 자본	연계 사회 자본	총점
미국	0.25	0.73	0.56	1.54
호주	0.38	0.72	0.56	1.66
독일	0.38	0.32	0.47	1.17
스웨덴	0.61	0.73	0.98	2.32
한국	0.88	0.09	0.15	1.12

주 : 구성요소별 점수는 해당 요소의 개별 측정 지표 점수의 산술평균이며, 구성요소별 각 측정지표는 표준화 값(0점-1점)임.

3. 시사점

- 첫째, 개인들의 공적 단체 참여를 통한 가교(Bridging) 사회자본 확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한국의 경우 개인들의 사적 공동체 참여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것이 공동체로의 신뢰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개인의 참여 하나 하나가 공동체의식으로 발전되는 것이므로 이를 완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금모으기, 월드컵 응원 등의 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어야 함

- 둘째, 환경 단체 등 공적 단체에 대한 지원과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에서 환경 단체 등 공적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공적 단체 참여의 기본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신뢰와 관련 교육 투자와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셋째, 공적 단체들 역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국내 NPO(Nonprofit Organization)들도 기부금 등의 활발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자발성을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기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일본의 경우 비영리단체 데이터시스템인 NOPODAS를 운영하며 공익법인들의 주소와 연락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 기본정보와 기부액, 지출내역 등 많은 정보를 공개함

장후석 연구위원(2072-6234, chahus@hri.co.kr)

<참고문헌>

- Andrew C. Inkpen(2005), "Social Capital Networks and Knowledge Transfer", Academy of Management
- Babb, P(2005),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 DeFilippis, J.(2001), "The Myth of Social Capital in Community Development", Housing Policy Debate, 12(4)
- Eve Parts(2008),"Indicators of social capital in the European Union", Working Paper IARG
- Happer, R. and Kelly, M(2005),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 Knack, S. and Keffer P.(1997). " Dees Inequality Harm Growth Only in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France.
- Oorshot, W. and Arts, W.(2005), "Social Capital of European Welfare States: the Crowding Out Hypothesis Revisit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1).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 Woolcock, M. and Narayan, D.(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roy, Research, and Polic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